

화학연구원, 연세대와 신약개발 공동연구

한국화학연구원은 연세대와 7월17일 연세대 스팀슨관 대학원 회의실에서 <생명통합 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독창적 신약개발 협동연구사업>협약을 체결한다.

양 기관의 신약개발 보유기술과 전문 인력의 협력을 통해 신약개발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독창적 신약 선도물질을 발굴해 국내외 제약기업과 글로벌 신약개발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.

연세대는 공동연구실과 연구센터의 공간 및 시설을 지원하고 임상연구 전문인력 등을 투입하며, 화학연구원은 신약개발 장비 및 기반시설, 전문인력을 투입한다.

양 기관은 신약개발복합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양 기관의 교수와 연구원을 상대기관의 겸임교수와 겸임연구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협력과정을 운영하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신약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.

이에 따라 최고수준의 신약개발 연구인력 및 인프라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, 병원이 협력하는 독창적 신약개발 협동연구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신약개발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<화학저널 2008/07/17>